

남미 전기공업 수출시장 개척단 파견 보고서

韓國電機工業振興會
調 査 課
代 理 李 祐 湜

목 차

1. 개척단 파견 개요
2. 주요 활동 일정
3. 남미(3개국)전기공업 현황
 - 가. 브라질
 - 나. 아르헨티나
 - 다. 칠 레
4. 방문 및 구매상담
5. 종합평가

1. 개척단 파견 개요

가. 목적

- 남미지역의 중전기 현황 및 전기공업 수출 시장 조사
- 상대국 구매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를 통한 유대 강화
- 현지업체와 수출상담을 통한 수출시장 확보
- 국내 중전기 현황 소개 및 기술교류 창구 마련
- 현지 업체와의 기술협력 및 시장진출에 따른 설비투자 환경 조사
- '94 서울국제종합전기기전 홍보

나. 파견지역(3개국)

- 브라질 ○ 아르헨티나 ○ 칠레

다. 파견기간

- '93. 11. 10(수)~11. 23(화)(14일간)

라. 개척단 구성

- 업체(8명), 진흥회(2명)
- 총 10명

(참가자 명단)

No.	소 속	직 위	성 명
1	한국전기공업진흥회	상근부회장	임 인 주
2	계양전기(주)	전무이사	이 상 익
3	동미전기공업(주)	전무이사	한 상 철
4	금성전선(주)	부 장	문 용 주
5	일진전기공업(주)	부 장	박 시 덕
6	중원전기공업(주)	부 장	이 상 준
7	효성중공업(주)	과 장	김 영 민
8	(주)진광	과 장	김 희 기
9	금성산전(주)	직 원	박 정 준
10	한국전기공업진흥회	대 리	이 우 식

2. 주요활동 일정

일 시	장 소	주 요 활 동 사 항
'93. 11. 11(목) 15:00~17:00	상파울러	○ 브라질 ELETRO PAULO 방문
'93. 11. 12(금) 09:00~18:00	Della Voipe 호텔	○ 브라질 INEPAR 사 등 21개사와 구매 상담
'93. 11. 15(월) 15:00~17:00	부에노스 아이레스	○ 아르헨티나 EDESUR 방문
'93. 11. 16(화) 19:00~18:00	호텔 PANAMERICANO	○ 아르헨티나 NAD- INCO사등 45개사와 구매 상담
'93. 11. 18(목) 09:00~18:00	CROWNE PLAZA 호텔	○ 칠레 DIPREL S. A사등 29개사와 구매상담
'93. 11. 19(금) 09:00~13:30	산티아고	○ 칠레 ENDESA 등 3개 전력청 방문

3. 남미(3개국)전기공업 현황

가. 브라질

1) 전력사업 형태 및 설비 현황

- 광산에너지성의 국가수리전력국(DNAEE)이 개발설비의 계획, 건설인가, 전기요금 결정 등을 포함 전력정책상의 모든 책임을 담당하고 있으나 실질적 전력사업 수행기관은 동전력국 관하의 브라질 전력공사(Electrobras)로서, 동사는 전국을 4개 지구로 분할하여 Electronorte, Chesf, Furnas 및 Electrosul 등 4개의 직할 전력공사를 산하에 두고 일부 私營電力會社와 함께 전력공급상의 책임을 맡고 있다.
- '88년말 총발전설비 용량은 49,000MW로 수력이 84%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화력 및 원자력이 15% 정도이다. 총 발전 전력량은 201,618GWh로 Amazon강을 비롯한 Parana Tocantins 및 Xingu강 등 대하천의 풍부한 유량을 바탕으로 수력이 약 91%에 이르고 있다.

2) 전력수급 현황

- '88년도 총소비전력량은 '87년 대비 8.5%나 증가한 212,177GWh였으며, 이는 최근 5년간(1980~1985)의 년평균신장율인 7.5%를 상회하는 것이며, 지역별로는 상파울로주를 비롯한 동남부 지역이 최대 전력 소비지로 나타나고 있다.
- 2005년까지의 장기수급예측을 보면, 2005년의 소비전력량은 522,100GWh, 용도별로는 공업용 56%, 주택용, 19%, 기타 25%로 현재의 구성과 큰 변화가 없을 것이며, 지역별로는 북부지역의 신장율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3) 장기 전원개발 계획

1987~1995년까지의 전원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995년의 총설비 용량은 60,504MW로서 1986년의 1.4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중설내역을 보면 수력이 16,534MW, 화력이 1,150MW로 수력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4) 전기공업 수출·입 동향

- 인플레이 억제를 위한 고금리 긴축정책의 여파에 따른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브라질 기업

의 적극적인 수출확대 정책과 브라질 정부의 수출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수출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변압기의 경우 '92년에 무려 148.3%의 급진장세를 보였다.

-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전동기, 발전기 및 변압기 등으로 '92년도의 전체 중전기 수출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전동기와 발전기류가 46.1%, 변압기가 35.2%를 차지하고 있다.
- 주요 수출지역은 미국으로 전체수출의 24.8%를 차지하고 있으며, '91년 이후부터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베네주엘라 등 인근 중남미 국가에 수출신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 주요 수입품목은 발전기, 전동기, 변압기 등으로 '92년도 전동기 및 발전기의 수입은 미불 124백만을 수입하여 전체 수입의 28.9%를 점하고 있다.
- 경기위축으로 인한 중전기 수요가 계속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수요는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어 '92년도의 경우 전년대비 46.0%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주로 미국 및 일본 등 모기업으로부터 부품수입이 많았으며, '92년도부터는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로부터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 '92년도 품목별 수입신장율(금액기준)을 보면 전동기 및 발전기가 151%, 변압기 및 유도자 등이 22.3%, 전기로 및 가열기기가 58.1%의 증가율을 보여 '92년도 수입실적은 전년동기 대비 46.6%의 급증현상을 보이고 있다.

〈'92 브라질의 전기공업 수출·입 동향〉

(단위: 미화 천불)

H.S. CODE	수 출	수 입	비 고
8501	98,534	123,581	
8502	3,023	25,462	
8504	75,216	124,975	
8508	16,001	4,264	
8514	6,942	28,178	
8535	4,963	11,581	
8537	9,083	34,417	
8544		74,510	
계	213,762	426,968	

나. 아르헨티나

1) 전력사업 형태 및 설비현황

- 정부는 법률 24,065호('91. 12. 19)에 의거, 과거 국영기업을 통한 정부의 관리에서 탈피하여 자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면적인 산업구조조정을 하여 해당기업을 민영화시키고 CAMMESA라는 관리업체를 신설하였다.
- CAMMESA는 주식회사로서 배전협회, 발전협회, 송전협회, 대사용자협회 등 4개관련 기관과 경제부 에너지청이 각각 20% 씩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설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제품질의 향상, 수급계획 수립, 시장감독 등의 기능을 갖고 있다.

2) 발전 현황

- 총 발전설비 용량은 14,414MW로서 발전방식별로는 화력 47%, 수력 50%, 원자력 3% 등의 구조로 되어 있다.
- 설비가동율은 92. 12월/91. 5월에 각각 43/75%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민영화로 인한 효율적인 경영으로 인한 생산증대와 경제안정 및 성장에 따른 수요증가에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 발전업체는 연방정부 소유의 AYEE, CNEA, HIDRONOR 등 3개사와 지방정부 소유 EPEC, ESEBA, SEE 등 3개사, 민간기업 16개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송전은 TRANSENER S.A. 1개의 민간기업과 AYEE, EPEN, ERSE 등 3개의 연방정부가 관할한다.

3) 배전현황

- 전력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수도권지역 배전을 담당하던 국영기업(SECBA)을 3개사로 분리 민영화하여 각각 수도권북부, 수도권남부, 리벨라타지역 등을 관할케 되었다.
- 전국의 배전업체는 수도권의 3개사와 지방의 17개사가 관할지역을 분할, 관리하며, 가입자 수별로 보면, 수도권 북부지역을 관할하는 EDENOR가 1,940천, 수도권 남부지역의

EDESUR가 1,880천, 여타사는 7만~80만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4) 장기전원개발 계획

- 1985년에 아르헨티나 국영수리전력공사(AY-EE)가 발표한 1985~2000년의 장기전력수급 및 발전소 건설계획에 따르면 1985년의 설비용량 9,699MW, 발전전력량 33,230GWh가 2000년에는 각각 20,994MW, 97,470GWh로 확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85년도 39.0%였던 수력설비 비율이 2000년에는 62.8%로 증가하고 51.3%를 차지하던 화력설비 비율이 2000년에는 27.4%로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 한편,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개발을 위하여 93~95년간의 3개년 개발계획 추진과제중 하나로서 동기간 도로, 가스, 상수도 및 용수, 전력, 전화, 항만 등 자본재 및 공공서비스 부문에 대한미불 약 300억의 투자계획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전력부문에 대한 투자규모는 전체의 약 33%인 미불 100억 수준에 이른다.

5) 품목별 시장동향

가) 시장개요

- 연간 판매액 기준 미불 5억규모의 중전기 시장은 신규 설비투자의 부족으로 수요가 정체상태를 보여왔으나, 최근의 민영화 및 정부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계획 등으로 수요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 중·저전압용의 제품이 주로 수요되는 동 시장은 일부품목의 조립생산을 제외하고는 전품목이 국산제품이 판매되었으나 91년 이후의 대외시장개방과, 국산품의 가격경쟁력 열위로 수입품의 비중이 약 5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진출을 급신장하고 있다.

나) 전동기 및 발전기

○ 수입동향

- 국산제품의 시장점유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현재 약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수입품이다.
- 현지의 주요 제조업체로는 CZERWENY HNCOS, CORRADI S.A., MOCBOS S.A. 등으로 여타 중전기 제품에서와 같이 품질면에서는 상당히 높은 성가를 유지하고 있다.
- 수입동향
 - 수입동향: 연간수입은 미불 500만 규모로 주요 수입선은 브라질, 미국, 독일 등이며 브라질이 수입시장의 약 24.7%를 차지하고 있다.

(단위: 미천불, %)

HS.CODE	'92	'93(1-2)	'92년 주요국별 수입점유율(%)
8501	4,755	473	브라질(24.7), 미국(17.5), 독일(15.8)의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일본, 대만, 중국, 홍콩, 한국 순임.

* 자료원: 통계청(CIF 금액기준)

다)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 수입동향

- 회전변환기는 국산과 수입품이 각각 50%씩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발전기의 경우 200~250마력의 제품이 국내에서 생산되고 기타 제품은 완제품을 수입하거나 조립용 부품수입의 방식으로 도입되고 있다.
- 현지의 회전변환기 제조업체로는 전동기 제조업체인 MOCBOS S.A와 ELANCIR S.A, TENAS S.A.사 등이며 발전기는 SCANIA 현지 생산업체와 PERKINS사 등이 있다.
- 수입동향
 - 수입동향: 연간수입은 미불 270만 규모로 발전기는 미국과 프랑스 등이 주요 수입선이며, 회전변환기는 스페인과 이태리 등이다.

(단위: 미천불, %)

H.S.CODE	'92	'93(1-2)	'92년 주요국별 수입점유율(%)
8502	2,688	384	미국(54.5), 스페인(10.8), 화란(10.5)의 독일, 일본, 브라질 순임.

* 자료원 : 통계청(CIF 금액기준)

라) 변압기, 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

○ 수급동향

- 변압기는 관련부품과 함께 국산품이 시장을 석권하고 있으며, 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는 국산과 수입품의 비율이 각각 50%를 차지하고 있다.

- 변압기 주요 제조업체로는 TADEO CZERWENY S.A., PARDAY S.A., FOAMA S.A., NASARIO RIVERA S.A. 등이며 정지형 변환기는 TAIT S.A., JOB S.A., ELECTRO MECANICA LIMA Y SAIF E I 사등, 유도자는 INDUSTRIAS WANOC, ASEA BROWN S.A.사 등이 있다.

○ 수입동향

- 수입동향: 연간수입은 미불 570만이며 한국이 최대 수입선으로 20.1%의 수입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단위: 미천불, %)

H.S.CODE	'92	'93(1-2)	'92년 주요국별 수입점유율(%)
8504	5,722	959	한국(20.1), 일본(14.2), 미국(14.2), 독일(13.7)의 싱가포르, 스페인, 이태리, 홍콩, 대만, 브라질, 중국 순임.

* 자료원 : 통계청(CIF 금액기준)

마) 차단기와 개폐기

○ 수급동향

- 차단기는 국산품과 수입품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50%로 500W 용량까지의 제품이 생산, 수입되고 있으며 개폐기는 1,000V까지의 용량제품이 수요되는 가운데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다.

- 현지의 주요 제조업체로는 EMA, TUBIOTUC-UMAN, INDUSTRIAS CICA, ELECTRO MECANICA ZOLODA, ELECTROMECHANICA LIMAY사 등이 있다.

○ 수입동향

- 수입동향: 차단기와 개폐기가 각각 미불 44만, 53만 규모로 수입되고 있으며 미국과 독일, 브라질, 프랑스 등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단위: 미천불, %)

H.S.CODE	'92	'93(1-2)	'92년 주요국별 수입점유율(%)
8535	443	77	미국(23.7), 독일(19.8), 브라질(16.9), 프랑스(14.6)의 일본, 이태리, 한국, 싱가포르 순임.
853530	528	61	독일(29.5), 미국(14.2), 브라질(14.0), 프랑스(11.5)의 일본, 이태리, 한국, 대만 순임.

* 자료원 : 통계청(CIF 금액기준)

바) 배전제어반

○ 수급동향

- 국산제품의 시장점유율이 약 90% 내외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제품보다 품질 및 가격면에서 어느정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 수입동향

- 수입동향: 연간수입은 미불 120만 규모로 주요 수입선은 미국, 스페인, 프랑스, 독일 등이다.

(단위: 미천불, %)

H.S.CODE	'92	'93(1-2)	'92년 주요국별 수입점유율(%)
8544	8,065	1,583	미국(38.8), 브라질(30.3)의 스페인,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싱가포르, 이태리 순임.

* 자료원 : 통계청(CIF 금액기준)

6) 수입관련 사항

- 관세 : 중전기기 제품은 대체로 15%의 수입 관세와 10%의 통계세가 CIF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75kW급 이상의 제품은 수입관세 및 통계세가 면제된다.
- 규격 및 품질에 관한 제도 : 수입시 수입관세와 규격 및 품질에 관한 일체의 규제는 없으나, 미국 등 선진각국의 규격 및 형식승인 취득여부에 따라 판매가격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 기타
 - 부가가치세 18%, 영업세 선납금 3% 등을 수입통관시 납부하여야 함.
 - L/C개설에 따른 수수료가 매우 비싼 수준(약 1%)이며 수입자는 통상 공급자 FINANCING을 요구하고 있다.

다. 칠레

1) 전기공업의 수급 동향

- 중전기기 품목에 대한 국내생산은 주요 부품 수입, 조립을 통한 완제품 생산의 형태를 띠고 있다.
- 최근 5개년간 전기공업의 생산은 매년 약 10%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92년의 경우 전년 대비 25.3%의 높은 신장율을 보이고 있다.
- 국내생산 규모는 수입규모에 비해 매우 미미한 상태로, 절대수요가 수입완제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 '92년도도의 경우 전기로 및 가열기, 수지식 전동공구, 차단기, 전선에 대한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기공업의 현황('89년 기준)〉

업체수	근로자수	총생산액	총생산부가가치액
54개	5,254명	281백만불	145백만불

자료 : 칠레 통계 금속협회(ASIMET)

〈전기공업의 생산추이(1979년-100기준)〉

1988	1989	1990	1991	1992
141.3	153.2	161.2	172.1	197.4

(자료 : 칠레 중앙은행)

2) 전기공업의 수출·입 동향

- '92년 칠레의 수입은 배전제어반을 제외하고는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수입호조 품목(10% 이상 증가) : 전기로 및 가열기, 수지식 전동공구, 차단기, 전선, 변압기, 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

〈최근년도 중전기기 수입실적〉

(단위 : 천개, 미천불, CIF)

H.S.CODE	'91년 금액	수 량	'92년 금액	전년비 증감율(%)
8501	30,184	506.8	31,299	3.7
8502	15,088	10.7	15,513	2.8
8504	20,911	1,484.9	23,576	12.7
8508	8,504	264.2	11,679	37.3
8514	3,739	10.7	10,140	171.2
8535	8,706	362.4	10,657	22.4
8537	14,599	75.5	12,904	-11.6
8544	26,045	5,145.4	31,748	21.9
계	127,776	7,860.6	147,516	

(자료 : 칠레 중앙은행)

- 수입부진 품목(5% 미만 증가) : 전동기 및 발전기, 발전세트의 회전변환기
- 감소 품목 : 배전제어반(전년비-11.6%)
- 국별 수입을 보면, 전반적으로 미국, 독일의 시장지배력이 높으며, 일부 품목에서는 브라질, 대만, 한국, 중국 등의 시장참여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품목별 국별 시장진출 현황〉

품 목	시장지배 현황 ('92년 수입총액대비 비중)
다상 교류 전동기 (출력 750W초과 -75KW 이하)	독일강세, 수량 9,893개(32.8%), 금액 3,055천불(35.5%)

품 목	시장지배 현황 (*92년 수입총액대비 비중)
단상 교류 전동기 (출력100W 이하)	한국 최대수출국, 수량 187,198개(56.7%), 금액 2,380천불(32.2%)
발전세트와 회전 변환기	전반적으로 미국산 시장석권
방전등 또는 방전 관용 외	중국산 저가 공세, 시장석권
안정기	수량 412,885개(70.3%), 금액 248천불(27.4%)
유입식 변압기 (10,000KVA 이하)	브라질 강세
수지식 전동공구	독일강세, 한국 수출 전무
개폐기	전반적으로 선진국 강세 브라질: 전압 7.25KV-72.5KV 용량 제품 강세
배전제어반	미국, 일본, 프랑스, 이태리 및 브라질 강세
전선	전반적으로 미국산 시장석권 대만: 플라스틱 절연전선(전 80V 이하) 최대 수출국 한국: 종이절연전선(80V 이하) 645,368 NET KG(48.4%), 금액 3,162 천불(50.0%) 미국: 광섬유 시장 석권

○ 칠레의 중전기기 수출은 미미한 수준으로 변압기, 전선등이 인접 국가에 수출되고 있다.

〈'92년 중전기기 수출 현황〉

(단위: 미화 천불)

H. S. CODE	수 량	금 액
8501	3,088	116
8502	24	110
8504	528,725	1,025
8508	5,279	104
8514	20	147
8535	1,629	51
8537	516	259
8544	1,224,593	3,679
계	1,763,874	5,491

(자료: 칠레 중앙은행)

4. 방문 및 구매상담

가. 방문기관

1) 방문일시

국 별	방문일시	방 문 기 관	참 석 자	
			한 국 측	상 대 국 측
브 라 질	'93. 11. 11(목) 15:00-17:00	ELETRO PAULO	KOEMA 개척단 (10명)	국제 구매담당 부장
아르헨티나	'93. 11. 15(월) 15:00-17:00	EDESUR	KOEMA 개척단 (10명)	EDESUR 이사 등 2명
	'93. 11. 16(화) 17:00-18:00	아르헨티나 중전기 협회	임인주 부회장	중전기 담당부 장
칠 레	'93. 11. 19(금) 09:00-10:30	ENDESA	KOEMA 개척단 (10명)	구매담당 이사 등 3명
	'93. 11. 19(금) 11:00-12:00	CHILGENER	KOEMA 개척단 (10명)	담당이사 등 2명
	'93. 11. 19(금) 12:30-13:30	DIPREL	KOEMA 개척단 (10명)	구매담당 이사 등 4명

2) 방문기관 현황

■ ELETRO PAULO(브라질) ■

- 1899년 커피산업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THE SAO PAULO LIGHT AND POWER COMPANY(ELETRO PAULO)를 설립하면서 출발
- 현재 브라질의 가장 큰 전력공급업체로 연간 매출액 360억\$, 종업원 22,000명으로 전력 수혜인원이 19백만명(브라질 인구의 14%)에 달하며 수혜지역 21,168KM(전 국토의 0.25%)를 담당하고 있다.
- 92년도 전력 소비량은 49.057GWH며 발전용량 1,390MW로 브라질 전체 소비전력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매년 4% 정도의 소비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소비전력도 69,815GWH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이같은 수요증가에 따라 1996년까지 대규모 송전망(ETT프로젝트)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연간 4억\$ 정도의 설비투자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 현재 관련 기자재는 변압기, 퓨즈 등을 중심으로 아르헨티나, 미국 등에서 수입화되고 있으며 구매는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직접 구매 또는 에이전트를 통한 구매를 병행하고 있다.

■ EDESUR(아르헨티나) ■

- 92년 1월 발전·송·배전을 담당해 온 국영 7개사 중 SEGBA를 분리하여 2개의 EDENOR의 EDESUR을 설립
- EDESUR는 92. 9 주식을 공개하면서 민영화 하였으며 동사가 공급하는 전력지역은 3,309 S/F로 부에노스아이레스 지역을 6개(CENTRO, SUR, DESTE, AV-ELLAN-EDA, LOMAS, QUILMES)로 구분하여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 EDESUR는 가장 큰 전력공급업체로 아르헨티나 총 전력의 18%인 9,500GWH을 공급하고 있으며 수용가는 200만 가

구에 이른다.

- 송전망의 길이는 684.4KM, 설비용량은 8,751MVA이며 배전망은 DUCK SUD S. A 등 8개의 발전소와 연결되어 전력을 공급한다.
- 94년 1억 2천만\$의 시설투자 계획에 따라 전선, 변압기, 콘덴서 등 관련기자재의 구매가 예상된다.
- 중·저압용 배전 자재의 수입을 희망하고 있는 동사는 국제입찰을 통한 구매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동안 브라질 및 유럽 등에서 관련 자재를 수입한 바 있다.

■ ENDESA(칠레) ■

- 칠레 전력공급의 60%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칠레 제 1의 전력공급 업체이다.
- 민영화 이후 수입(NET)이 261백만\$로 91년 대비 30.2%의 증가를 보였으며 총 자본은 2,960백만\$이다.
- 동사는 산하에 국내 6개 회사, 해외 2개 회사 및 4개의 협력회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주총회시 9명의 이사를 선출하여 3년 임기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종업원 규모는 1,671명이다.
- 최근에는 아르헨티나에 EDESUR S. A (1,260MW)회사를 설립하여 전력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 전체 전력생산 설비의 86%가 수력발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화력으로 총 설비용량 1,928MW, 생산전력 8,898백만 KWH, 판매전력 8,093백만 KWH이며, 송전망의 길이가 9,421KM에 이른다.
- 동사도 관련 기자재는 국제 입찰형태로 구매하고 있으며 향후 장기 전원개발 계획에 따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진다.

■ CHILGENER(칠레) ■

- 칠레의 2번째 큰 전력회사로 칠레 전력공급의 30%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
- ENDESA와는 반대로 동사에서는 화력

85%, 수력 15%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르헨티나, 페루의 전력사 지분을 소유, 투자를 하고 있다.

- 발전·송·배전을 담당하는 동사는 종업원 850명, 자본금 7억 5천만\$에 총 발전용량은 750MW이며 95년까지 발전용량을 1000MW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 향후 10년간 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10억\$정도의 기자재 구입 계획을 갖고 있으며 구매는 국제입찰에 의하고 최근 4년간 6억\$ 정도의 자재를 일본, 스페인, 미국 등에서 수입한 바 있다.

■ DIPREL(칠레) ■

- 칠레 배전량의 50%를 담당하는 배전회사 CHILETRA METROPOLITANA S. A

사가 민영화 되면서 계열 구매 AGENT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회사임.

- 동사의 연간 구매량은 3~4천만\$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품목은 변압기, Cable, 절연기기, 계량미터기, 가로등 부품등임.
- 주요 품목별 구매계획을 보면 변압기 150만\$, Cable 300만\$, 절연기기 50만\$, 계량미터기 200만\$, 가로등 부품 200만\$로 이중 50%정도는 수입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구매시 외국산에 대한 차별은 없고 가격경쟁력에 의한 구매를 실시함.
- 동사의 경우 우리 제품에 대한 聲價와 관심이 높고 Cable의 경우 진출경험이 있어 시장진출이 용이할 것으로 보여짐.

나. 구매상담

1) 상담일시

국 별	상 담 일 시	상 담 장 소	상 담 자	
			한국측	상대국측
브 라 질	'93. 11. 12(금) 09:00-18:00	상파울러 Della Volpe 호텔 (Sala de Ouro Room)	금성산전(주) 등 8개사	INEPAR사 등 21개사
아르헨티나	'93. 11. 16(화) 09:00-18:00	부에노스아이레스 호텔 PANAMERICANO (CARLOS PELEGRINI ROOM)	"	NADINCO 사 등 45개사
칠 레	'93. 11. 18(목) 09:00-18:00	산티아고 CROWNE PLAZA 호텔 (SALON PRIETO ROOM)	"	DIPREL S. A사 등 29개사

2) 구매상담 결과

(단위: 천불)

국 별	상 담 업 체 수	상 담 건 수	상 담 예 상 액
브 라 질	21	49	6,480
아르헨티나	45	72	13,700
칠 레	29	57	10,450
계	95	178	30,630

다. 아르헨티나 '중전기협회'와의 업무협약 합의

- '93. 11. 16(화)아르헨티나 '중전기협회'

(Camara Argentina de Industrias Electromecanicas)를 방문, 양 단체간 정보자료 교환과 중전업계 인적 교류 및 중전

- 기기 국제전 등에 상호협력할 것을 합의
- 이에 양국간 업계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와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업계간의 교류에 있어 상호협력하기로 하는 협약서를 체결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양국 업계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5. 종합 평가

남미 시장은 최근 시장개방 및 수입자유화 정책 추진과 함께 인플레이 억제를 위한 각종 경제개혁 조치등에 힘입어 수입수요가 급증하면서 우리나라 주요 수출시장의 하나로 급부상, 높은 시장 잠재력을 엿보게 하고 있다.

최근 3년간('90-'92년) 남미의 총 수입규모가 연평균 18%의 급속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 업체의 노력에 힘입어 경쟁우위 품목 위주로 대남미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90년대 들어 시장개방 및 민영화 등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면서 소비재 뿐만 아니라 산업기계류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경제회복과 함께 지속적으로 수입 관세 인하정책을 펴고 있고 '95년부터는 NAFTA체결에 대응,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남미 공동시장 (MERCOSUR)창설이라는 지역경제 통합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외국업체와의 기술 및 합작투자 등을 희망하고 있어 국내 업체의 이 지역 진출이 더욱 유망할 것으로 보여진다.

전기공업 분야의 경우 신규설비 투자의 부족으로 수요가 정체되어 왔으나 중장기 전원개발 계획추진 등으로 발전설비 투자 및 송배전 설비 확충, 유지보수에 따른 중전기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설비를 국제입찰을 통해 구매할 계획으로 있어 국내 중전기 업체의 국제 입찰을 통한 진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중·저압용의 제품이 주로 수요되는 동 시장은 국산품의 가격 경쟁력 열위로 수입의존도가 절대적인 만큼 상대적으로 우리가 기술우

위인 저급기술, 소용량 등의 품목에 있어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시장 개척 활동을 펼 경우 수출이 급진장 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남미 지역은 지리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하여 상품의 적기공급이 곤란하고 운송비가 과다하며 외환사용 통제에 따른 수입장애 및 높은 관세, 언어장벽 등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도 상존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교역증진을 위해서는 지리적 여건극복과 함께 MERCOSUR대비 차원에서 현지 투자기술 수출확대 방안이 요망되며 국영기업 민영화 및 공업현대화 프로젝트에 따른 입찰 참가를 적극 지원하고 시장구조에 맞는 고급 및 저가상품의 다양한 공급 등 상품 차별화 전략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투자진출시 사전 철저한 준비와 현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에 실패할 경우가 있는 만큼 우리 수출기업과 교포 무역인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현지 KOTRA무역관을 통한 사전조사 및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우리의 대남미 수출증대 및 진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규모 및 기술력 평가 등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수출전략이 있어야 할 것이며 현지 박람회 참가 등 적극적인 시장 개척 홍보활동 전개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시장개척단이 방문한 남미 3개국을 포함한 남미지역은 민영화 및 정부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계획에 따라 장기 전원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향후 중전기기의 대규모 수요가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제품에 대한 인지도 및 聲價가 높아 지속적인 제품홍보와 기술교류 및 입찰 활동 강화, 현지 합작투자 등의 장기적인 시장진출 계획을 세워 체계적인 투자를 할 경우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우리의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